

9 우리도 모델처럼, 모델도 우리처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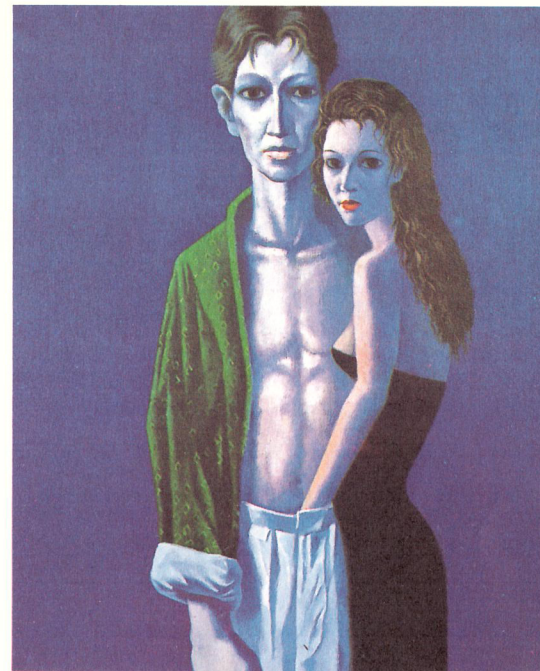
「우리는 미국의 할리우드식 문화 규범에 완전히 묶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. 미에 대한 가치와 판단 기준 또한 그들의 표준에 매달려 우리의 허황된 욕정이 마릴린 먼로의 젓가슴마냥 할리우드의 코 앞에 노출되어 있다. 미스 코리아는 정확하게 미스 아메리카의 표준 몸매를 닮아야 한다.

안창홍의 그림 ‘우리도 모델처럼-3’은 이러한 헛된 욕정에 호응적거리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.

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두 남녀가 켤한 눈으로 오히려 우리를 뚫어저쳐 쳐다 본다. 남자는 마치 오렌지족을 연상케 하는 험령하고 편안해 보이는 옷차림과 무스로 곱게 힘을 준 헤어스타일을 한 채 가슴을 드러내고 여윈 섹스어필을 하고 있다. 잘룩한 허리가 매력적인 여자는 잔치집이 아니라 파티에 어울릴 드레스로 알몸보다 현기증나는 몸매를 드러낸다. 여자는 손으로 남성을 애무하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는 냉랭한 기운만 돌고 있다.

주물러도 일어서지 않는 죽은 남성은 가치가 없다. 그러나 그도 돈을 내고 산 상품이라면 즐길 때까지 가치의 효용성이 연장된다. 성을 통해 자신을 깨닫는 청소년기처럼 우리 사회도 순수의 시대를 가졌던 기억이 있다. 하지만 지금 성이란 일정한 금액을 치루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렸다. 우리 사회도 무엇이든지 화폐와 교환만 된다면 이미 그것으로 가치를 부여받는 욕망의 시대로 변해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작가는 죽음의 냄새를 화면 위에 짙게 깔아 놓았다.)

욕정이 묻어나는 포즈를 취하고 두 남녀가 자신의 성적 매력을 스스로 거간한다. 그러나 작가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표현하여



안창홍, 우리도 모델처럼-3, 아크릴릭, 73 × 90cm, 1991, 개인소장

그들이 파는 성의 정체를 고발하고 있다. 아메리카의 허구 세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문화일 수도 있고, 쾌락에 빠져 자기 정체성마저 하룻밤의 열락과 바꾸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이 병든 얼굴은 그래도 모델처럼 자세를 취하며 남 앞에 선다. 이처럼 작가는 일체의 여유를 허용치 않으며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성을 통해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.

이처럼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고발할 수 있는 미술 속에서의 에로티시즘은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. 그러나 우리가 성을 성 그 자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이 그림의 주인공같이 우리도 모델 - 할리우드와 자본이 심어준 가치 규범 - 처럼 포즈를 취하게 될 것이다.